

전통수의침구학

수소양삼초경 手少陽三焦經



강 무 속
 동물제증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수소양삼초경 手少陽三焦經

삼초는 오장육부 중 육부六腑의 하나로서 심포와 표리관계를 이루며, 상초·중초·하초를 합하여 삼초라고 하는데, 횡격막 이상을 상초, 횡격막에서 배꼽까지를 중초, 배꼽 아래를 하초라고 하며, 상초는 심心和 폐肺를, 중초는 비脾와 위胃, 하초는 간肝-신腎을 포괄하여, 수액대사를 주관하고 기의 생성과 분배에 관여한다고 한다.

삼초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상초에 심장과 폐를 집어넣고 기능은 “여무如霧”, 즉 안개와 같다고 하였고, 중초에는 비와 위장을 넣고 기능은 “여구如口” 즉 물이 내려올 때 생기는 거품과 같다고 하였으며, 하초에는 간과 신장, 방광을 넣고 기능은 “여독如瀆” 즉, 도랑과 같다고 하였다.

현대적인 해석을 하자면, 상초가 안개와 같다는 것은 흉부에 있는 심폐心肺는 기氣를 다스려 기혈氣血의 운화(생성과 분배)를 주관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물질동화는 심장에 의한 혈액순환과 폐에 의한 산소공급이 없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폐를 통해 호흡과 혈액을 전달하는 기능이라 해석할 수 있다.

중초는 “여구如口” 즉 물이 내려올 때 생기는 거품과 같다고 하였는데, 횡격막과 S 결장의 사이에 위치한 비장·위장·대장·소장 등의 기능을 주관하는 중초가 음식물의 섭취와 순화작용을 시키는 동시에 진액津液(=수분)을 흡수하여 오장육부의 전신조직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초는 “여독如瀆”이라 하였는데,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대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뜻으로,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과 수액을 흡수한 후에 청淸·탁濁으로 가려서 거칠고 탁한 것은 대변으로, 액체성이고 맑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삼초는 명문과 함께 그 해부학적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그 중요성에 비해 이해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장기이다. 삼초와 명문은 옛날부터 ‘유명이무형(有名而無形)하고 무형이유용(無形而有用)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고, 형태는 없으나 기능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해부학상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기능만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서술은 해부학적 구조의 유무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기능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도 여러 가지 학설이 대두되게 하였다.

표 1. 삼초의 명칭과 기능

	명칭	부위	관련 장기	기능	비유	현대적 해석
삼초	상초	횡격막 이상	심, 폐	수분의 통로 원기의 통로	여무(如霧): 안개와 같다	심폐를 통해 호흡과 혈액을 전달
	중초	횡격막 ~ 배꼽	비, 위		여구(如口): 물과 혼합됨	음식물의 소화 흡수작용
	하초	배꼽 이하	간, 신		여독(如瀆): 도랑과 같다	대소변 생성과 배설

한의학의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황제내경에서는 삼초의 기능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내경 이후 난경에서는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다고 서술하고 있어, 지금까지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표 2. 삼초에 대한 역대의 학설

시 기	삼초 학설의 내용
《황제내경》	육부중의 하나. 그러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기와 수액의 통로라고 인식.
《난경》	유명이무형有名而無形설을 제시. 유형무형을 둘러싼 논쟁의 시작점.
한당시대	삼초를 상중하로 나누어 정부를 배속시킨 부위 개념으로 사용. 정부와 경락에 기를 순행시키는 기능과 그 통로로 인식.
금원시대	기존 무형설 + 해부학적 형태가 있다는 "유형설" 등장.
명청시대	기존 무형설 + 삼초를 임파계로 주장하는 유형설
근현대	임파계설, 내분비계설, 자율신경계설, 체장설. 삼초-식도, 중초-간문맥, 하초-수요관으로 해석하는 설.

해부학적 형태와 구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반면에, 삼초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두 가지 기능으로 일치해 보이고 있는데, 수액의 통로이며 원기의 통로라는 것이 그 두 가지 기능이다. 물론 삼초의 해부학적 형태에 대한 논쟁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기능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깊이 있는 고찰과 임상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전통수의학에서는 삼초의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이유를 위에서 다양한 학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삼초는 부위 개념으로써 상중하로 나누었고, 상중하의 부위에 해당하는 장기를 각각 배속하였다. 삼초에 폐와 심을 배속시켰는데, 폐와 심의 모든 기능이 삼초

의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폐와 심의 기능중에서 수분과 기의 생성과 분배 측면의 기능을 삼초의 기능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초와 하초도 그렇다.

수분과 기의 생성은 음식물의 소화흡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화흡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온도와 기능이 밑받침되어야 하기에, 삼초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명문의 화火와 연관시켜 설명을 하게 된다.

삼초의 기능은 수분과 기의 생성과 분배에 있어 음식물이라는 원료의 초기 가공단계에서부터 유태죽 상태의 소화흡수 과정, 그리고 수분과 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의 배설과정까지 전체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소양삼초경 手少陽三焦經

수소양삼초경은 전소양삼초경이라고도 하는데, 삼초에 소속되고, 심포와 연결돼 표리관계를 이룬다. 경락의 흐름을 보면, 네 번째 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앞발의 바깥쪽 가운데 경로를 따라 올라와 견관절 앞에서 가슴으로 들어가 심포와 연결된 뒤 후 횡격막을 지나 삼초로 들어간다.

가슴에서 다시 위로 올라온 분지는 뒷목 외측, 귀 아래쪽을 거쳐서 뺨을 지나 눈 아래에 이른다. 귀 아래에서 다른 분지가 나와 귓속을 지나 귀 앞으로 나오면 외측 눈끝 부위에서 담경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수소양삼초경에는 23개의 혈이 사용되고, 소동물에게는 14개 정도의 혈을 사용된다. 예풍, 외관, 이문, 사죽공 등의 혈이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편이다. ♡

